

**포근한 주말** 4월 15일 (음 3월 18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았다.

광주	7~17℃
주목포	7~15℃
여수	8~14℃
완주	7~16℃
수원	5~17℃
도봉	5~16℃
해남	5~16℃
장흥	5~16℃
곡성	7~16℃
고흥	4~18℃
진안	6~16℃
무안	6~15℃
담양	6~17℃
영광	5~17℃
영암	6~16℃

▲해돋이 06:01 ▲해질 19:05  
▲달출 20:48 ▲달질 06:30

목포 밀물 03:11 썰물 08:21 여수 밀물 09:54 썰물 03:52  
15:08 20:24 22:23 15:48

◇주간 날씨 기상내선화: 국면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날씨						
최저/최고	5/14	5/20	7/22	9/21	11/19	10/23

## 일본 뇌염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 예측조사 결과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제주도에서 발견됨에 따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 뇌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에 비해 12일 빠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지역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늪지대의 모기 서식지 제거와 가축 사육장 등에 대한 살충 소독 등 주변 환경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뇌염 환자는 2001년 1명, 2002년 6명, 2003년 1명이 각각 발생했으며 2004년도에는 환자가 없다고 지난해 6명이 발생했다. 일본 뇌염은 초기에는 고열과 두통,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다가 의식장애와 혼수 상태로 빠져들면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치유되더라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는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 ‘인공 바다’ 첫 선

해양연구소 제1예인전차 설치 선박 내항·조종 성능시험 등 수행

‘인공 바다’가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였다. 한국해양연구원(원장 염기태)은 최근 대덕연구단지 내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에 해양공학 수조 제어 예인전차(CPMC·자선)를 설치했다. ‘인공 바다’로 불리는 해양공학 수조는 실험역 해상 상태를 모사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험시설. 규모는 ▲길이 56m ▲폭 30m ▲깊이 4.5m이며, 깊은 바다 속 조건 구현을 위해 직경 5m, 깊이 12m의 심해용 피트(pit·深淵) 시설이 마련됐다.

이 수조는 또 다양한 불규칙파·균일조류·스펙트럼 특성을 갖는 바람의 재현을 위한 장비, 수직 이동이 가능한 조파기·심해조건 구현을 위한 피트·다중 경사판식 소파장치 등의 장비도 갖췄다. ‘인공 바다’에서는 이들 첨단 장비를 이용, 규칙파·불규칙파·사파·다방향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파도를 실제 해상에서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재현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인공 바다’의 설치로 그동안 해역로 나가서 수행하던 선박의 내항 성능시험·선박이나 수중물체의 조종 성능시험·자유항주 시험·해양구조물 이동 및 설치 운동시험 등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기술의 보호와 조선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조선대 유학 동남아 학생들 가벼워진 발걸음

# “워드 방문이후 한국인 눈길 더 따뜻해졌어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외국인이라서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른 피부색, 외국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가 많았던 국내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의 발걸음이 최근 한결 가벼워졌다. 단일민족을 고집해왔던 우리 사회에서 미국 ‘슈퍼볼 영웅’ 하인스 워드의 방문 이후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부당한 편견 많았는데...

14일 오후 조선대 교정에는 네팔, 인도 등 동남아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환한 웃음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피부색과 언어·문화가 각각 다른 이들에게 학교내 공간만큼은 ‘단일민족’을 고집해온 한국사회의 ‘단한듯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들에게 함께 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 피부색이나 언어·문화가 다른 것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를 벗어나면 외국인이란 이유 때문에 종종 곤욕을 치르곤 했다.

한국에는 ‘불법 체류자’ 등으로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비하하며,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부정적인 편견이 존재하고 있어서였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 영어, 그리고 자국의 언어 등 3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세계인)으로 우수 인재들이다.

네팔 출신의 서두르다 아자라(32·분자생물학 박사과정)씨는 “한국에 온지 1년이 넘었지만, 한국 학생들과 긴밀하게 만날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며 “최근 한국인 학생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앞으로 한국인들과 친근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한국문화 더 배우고 싶어

인도 출신 무하마드 르크만(28·고분자공학 박사과정)씨는 “요즘 부쩍 다른 문화·장소·종교·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한국



14일 오후 조선대학교에 유학중인 외국인들이 교내 잔디밭에 앉아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읽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나평기자 mjna@kwangju.co.kr

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등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한국 학생들 역시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선호하고 있다.

박주일(조선대 법학과 2년)씨도 “전에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라 아 날까 생각했지만 학교에서 외국인 유

학생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편견이 사라졌다”며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대에는 현재 총 30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대부분 베트남, 중국, 인도, 네팔 등에서 온 학생들로, 학부 155명, 대학원(박사과정 포함) 117명, 어학연수 35명이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 나원침 (6805) 김창두



## 복합지역 복구활동 등 격려 31사단 대통령 표창

향토사단인 31보병사단이 부대창설 51주년 기념일인 14일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겨울 호남 복합 피해지역에 연인원 16만여명, 장비 6천여대를 투입해 53일간 복구활동을 펼친 공로 등을 격려하기 위해 31사단에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1사단은 지난해 국군의 날 부대표창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부대가 됐다. 31사단은 이날 오후 이봉원 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연병장에서 창설 51주년 기념식을 하는 한편 대통령 표창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최재호기자 cki@kwangju.co.kr

## 교육위원 아들 특채 물의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위원 아들을 6급 직원으로 특채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모(61) 교육위원의 아들(28)이 지난 2월 평생교육체육과 행정자료실장(6급)으로 특별 채용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5급 사무관이 맡았던 행정자료실장 자리를 직급 조정을 통해 6급으로 한 단계 낮춰 김위원의 아들에게 맡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별정직 채용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채용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가수 故 김광석씨 딸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4일 가수 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 양이 음반사인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김광석 3·4집’ 및 ‘다시부르기 1·2집’에 대한 음반 제작 및 판매,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 인터넷 ‘지식검색’서 배워 사기행각

○...울산남부경찰은 14일 인터넷 지식검색에서 배운 방법으로 고가의 중고 운동화를 가로챈 김모(18·고2)군을 사기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에 나온 ‘안 걸리고 사기치는 법’을 본 후 중고 운동화 한 켤레를 24만원에 판다고 인터넷에 올린 서모(30)씨의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긴 뒤 서씨에게 전화해 그 운동화를 사겠다고 약속.

○이이 김군은 이모(17)군이 인터넷 채팅으로 운동화를 사겠다고 접근하자 이군에게 서씨의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고 송금하도록 한 뒤, 다시 서씨에게는 친구 명의로 돈이 송금되면 운동화를 배달해 달라며 자신의 주소를 가르쳐 주는 수법으로 운동화를 가로챈 것. /연합뉴스

# 이번엔 대낮에... 또 편의점 강도

## 광주 금호동서 흥기 위험 22만원 빼앗아 달아나

올들어 광주에서만 주 1회꼴로 발생해온 야간 편의점 강도가 이번에는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경찰이 야간에만 잠복 요원 배치한다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점심시간을 이용해 1분 만에 현금을 털고 달아나 5분 뒤 출동한 경찰을 허탕하게 했다.

14일 오후 12시 25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M 편의점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침입, 여종업원(32)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을 털어 1분만에 달아났다. 경찰은 이번에도 5분 뒤에 현장에 나타나 헛걸음만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최근 광주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며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등을 털어 1분만에 달아났다. 경찰은 이번에도 5분 뒤에 현장에 나타나 헛걸음만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최근 광주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용의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편의점 강도 용의자와 달리 키가 작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면서 “특히 범행 시간이 대낮에 이뤄진 점으로 미뤄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광주에서만 발생한 편의점 강도는 모두 12건으로, 이 가운데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힌 김모(32)씨 등 2명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을 뿐이다.

경찰은 최근 ▲편의점 업주 교육 ▲긴급 전화 설치 ▲종업원 호루라기 착용 ▲잠복형사 증원 등 편의점 강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주력해왔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 간질환 3살배기 아들위해 생보자 부부 기저귀 홈처

광주 북부경찰은 14일 대형할인점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유아용 점퍼, 기저귀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부모(40·광주시 북구 두암동)씨와 부인 이모(여·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지난 13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H할인점 1층 매장서 기저귀와 물티슈를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유아용 점퍼, 장난감 등 47만 원 상당의 유아용품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3)의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며 유아용품들을 살 돈이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전남대생 90% 총장 불신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회장 )가 등록금 9% 인상에 반발해 이례적으로 실시한 총장 불신임 투표에서 90% 가까운 학생들이 ‘불신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14일 오후 대학내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강제총장 불신임 투표에서 재적인원 1만7천991명(여수 캠퍼스 제외) 가운데 9천291명(51.6%)이 참여, 89.4%인 8천305명이 ‘불신임’했다”고 밝혔다. 또 동맹휴업 찬반 투표에서는 찬성 7천73명(82.6%), 반대 1천359명(14.6%)으로 나타났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법원 ‘작은 음악회’ 광주지방법원(법원장 전수안·오른쪽에서 세번째)은 14일 낮 12시 법원 1층 현관에서 ‘법원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음악회는 광주지법 법원 임무와 일상에서 지친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법원은 앞으로도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 계획이다. /나평기자 mjna@kwangju.co.kr

## ‘해상 불꽃쇼’ 목포가 들썩

15일 밤 8시께 목포시 하당 신도심 평화의 광장 앞 해상에서 화려한 색으로 밤 하늘을 수놓을 ‘해상 불꽃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바다에서 연출될 이 불꽃쇼를 보기위해 외지 관광객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빌딩 스카이라인과 카페, 음식점은 물론 목 좋은 모텔까지 예약 받기에 바쁘다.

처지기 때문에 이색적이고 환상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

목포시는 ‘평화의 빛이여’라는 제목으로 30여분간 실시할 이 불꽃쇼를 위해 1억원을 들여 15t 트럭 4대 분량의 화약과 50m 길이의 바지선 2척을 동원한다. 쇼는 평화의 광장 400m 전방 해상에서 레이저 쇼로 시작된다.

목포시 박철원 문화관광과장은 “바다 위에서 빨강, 노랑, 파랑 등 색깔의 조화와 함께 하트, 버블, 무지개빛 섬광의 수직상승 등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관을 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